

## 26. 맹수들 모양으로 예언된 역사

2012. 6. 2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시간을 맡고 있는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6장을 공부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적 상황이 세상 종말에 있을 사건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법률 사이에 있을 충돌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상징적 언어로 예언된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으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성경 예언의 진리를 확인하는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 우리가 세상의 장래에 대한 성경 예언을 연구하려면 꼭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답: 성경에서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을 때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하셨지요. 오늘 봉독한 본문인 마24:15에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읽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장래를 알려고 하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또 계시록 1:3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으니 말세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려고 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두 책은 역사적 장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2. 예, 그렇군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니엘 1~6장까지 말씀을 하면서도 예언적 표상에 대한 것을 꼭 말씀하신 것이네요?

답: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예언적 표상에 대하여서는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만 말한 것은 아니지요. 성경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다 구원의 복음의 어떤 면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다니엘 2장은 정말 세상의 역사적 미래에 대한 사실을 예언한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다른 사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된 표상이 주류이지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역사진행과 관계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연구해야 하고, 예언한 내용이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은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사업도 확실하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지요.(요13:19) 또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역사적 시점에 사는 신자들이 글 시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딤펈전 1:18,19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 읽으시겠습니까?

[딤펈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언을 따라 그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게 되고 파선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은 반드시 연구하고 깨닫고 예언된 역사적 시점에서는 성경이 지시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신앙의 좌표라고 합니다. 예언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할 역사적 위치를 모릅니다. 그런 신앙을 방황하는 신앙이고 그렇게 되면 신아가 파선하고 선한 양심을 잃게 됩니다.

3. 듣고 보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요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네요.(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할 제목이 맹수들 모양으로 예언된 역사인데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답: 예, 다니엘 7장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 7장은 네 마리 맹수 형상으로 세상의 역사의 미래와 역사의 진행을 계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여기는 상징과 암호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각장의 주제는 1~6장과 같다고 봅니다. 그것은 1장 7장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2장 8장은 역사의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 3장 9장은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4장 10장은 우주의 주권자 그리스도, 5장 11장은 세상의 심판장 그리스도, 6장 12장은 궁극적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각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고 보입니다. 저의 주관적 견해일 수도 있지요.

4. 목사님의 견해는 결국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로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이상한 상징과 암호로 계시하셨을까요?

답: 예,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 쟁투를 계시한 책입니다. 그 주제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사망에 매어두려는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이지요. 전투를 위하여서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6:10을 한 번 읽으시겠어요?

[사46: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사망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에 사단이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략을 나타내실 때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미리 다 보시고 아시지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방해를 피하여 승리할 것인지를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상징과 암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상징과 암호를 푸는 열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숨겨 두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상적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런 예언을 풀다가는 엉뚱한 곳으로 빠집니다.

5. 그렇군요. 예언을 연구할 때 그 상징과 암호를 푸는 열쇠를 먼저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것을 찾아냅니까?

답: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성경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서로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두셨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28:13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 저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찾아서 해석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장은 에브라임의 교만한 자들이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교만한 자들이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9,10에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런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조롱하는 그 말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성경을 연구할 때 여기저기 숨겨놓은 암호 해석말씀들을 찾아서 연구하라는 지침으로 볼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요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사실은 바울도 고전2:10~14에 친절히 기록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보시지요.

[고전2:10~14]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달아야 한다고 했지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으로는 결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실제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데 예언을 연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6.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참 쉽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시네요. 정말 그렇지요. 자기감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풀이하고 설명한 것이 성경 전체 사상과 조화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지요. 성경을 인용해도 성경적으로 인용하지 않으면 전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지는 않지만 아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시험의 광야에서 마귀가 시편 95편을 인용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성경을 전혀 성경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경우이지요. 그러므로 성경말씀을 사용해서 말한다고 반드시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많은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애틀 보잉사에 가봤는데요, 보잉 747의 부속이 600만개라고 했는지 60만개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비행기 하나에 그만큼 많은 부속이 제자리에 들어가 맞아야 제대로 완전한 기능을 하지요. 성경도 그렇게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되어야 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편에는 맞은 것 같은데 전체에서 그것이 들어갈 위치에 넣어보니 조화가 안 되면 잘못 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자기 사상으로 풀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설명도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철저히 성경 자체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7. 옛날 베뢰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지요. 우리도 그런 모범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다니엘 7장을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원칙으로 말씀하시겠다는 뜻으로 들으면 되는지요?

답: 예, 당연하지요. 다니엘과 계시록은 이 세상에 흔히 있는 광경이 아닌 것들을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내 자신에게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원년은 기원전 553/552년쯤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13년 전쯤입니다. 6장 사건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일이지만,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한데 모았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계시를 따로 모아 후반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지요. 목사님이 단7:1~8가지 읽어주시지요.

[단7:1~8]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숩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지요. 애청자들께서도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물이 출렁이는 큰 바다가 있고 바람이 사방에서 바다 위로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일어나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매수 네 마리가 차례대로 올라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다 맹수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만화를 그려주시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가르쳐주시려고 한다고 표현하지요. 성경은 태초부터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뱀이 등장하여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사건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등장한 것은 뱀이니까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지요. 그런데 다니엘 7장과 8장, 또는 계시록에는 정말 이런 동물들이 계시 중에 등장합니다. 연구하는 우리들이 깊은 인상으로 연구하도록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 자체의 해석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설명이 됩니다.

8. 이 기록에 나오는 바다, 바람, 맹수 이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습니까?

답: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광경이라고 생각합

니다. 먼저 바다가 무엇인지 성경의 해석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17:1과 15을 읽어보지요.

[계17:1, 15]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이 말씀에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뜻합니다. 바다는 많은 물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바다도 백성과 무리와 여러 나라와 방언들이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에 바람이 불니다. 그러면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성경에서 해석한 것을 찾아야겠지요. 예레미야 렘4:11~13을 읽어보지요.

[렘4:11~13]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 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12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13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을 가리키는 암호이지요. 비슷한 내용은 예레미야 49:36,37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백성과 무리와 여러 나라와 방언들이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 맹수들이 올라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중에서 맹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들이 무엇을 뜻하는 암호인지 찾아봐야지요.

9. 목사님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맹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하기로 하고 끝맺어야겠습니다.

답: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상징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시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흥미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들을 바르게 깨달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